

갈라지고 움푹 패고... 위험천만 '포트홀'

균열 도로 곳곳서 목격 운전자들 "포트홀 때문 교통사고 날까 걱정돼" 제주시 "보수 예산 부족"



아스팔트가 길게 파여있는 도남동 우체국사거리 인근 도로.

강민성기자

제주시 도로 곳곳에 있는 포트홀(도로가 움푹 파이면서 생겨난 구멍)이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또 포트홀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어 안전에 대한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10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우체국 사거리의 인근 도로에는 차도에서 횡단보도까지 이르는 구간엔 길이 4~5m의 움푹 파인 포트홀이 목격됐다. 포트홀은 차들의 바퀴가 닿는 부분에 나 있어 차들이 피하려고 옆차로 일부를 차지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또 제주시 천수동로와 동광로가 맞닿는 사거리 횡단보도 근처에 여러 갈래로 파인 포트홀이 보였다. 실제 10여분간 지켜본 결과 횡단보도

흰 페인트 사이에 포트홀이 있어 차량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포트홀을 지나가는 차체는 심하게 여러 번 흔들렸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포트홀을 피해 다니며 걷는 장면도 목격됐다.

운전자들은 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험을 여러 번 겪었다고 토로했다.

최모(37)씨는 "운전할 때 포트홀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밟는 바람에 차가 휘청거리 놀란 적이 많았다"며 "가끔 옆 차량들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시 연북로, 연삼로, 천수동로, 보건소 사거리 일대를 확인한

결과 작게는 15cm, 크게는 60cm 가량의 포트홀 수십여개가 목격됐다. 일부 도로에선 포트홀은 없었지만 도로 균열이 길게 이어진 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제주시의 도로 보수 진행이 더뎠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노선은 3988개, 노선 길이는 2283km로, 이 도로를 다 정비하려면 해마다 200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 이보다 70~80% 적은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의 도로보수 예산은 43억 50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포트홀 신고가 들어오면 보수원이 현장 출동해 확인 후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포트홀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민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보수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오일장 살인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인간 존엄성 훼손... 죄질 매우 안좋아"

귀가 중인 30대 여 강도살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양정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도두1동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A(3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약 5시간 후인 31일 0시30분쯤에는 현장을 다시 찾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려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울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날 0시55분과 2시6분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체크카드도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는 대범

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강씨는 지난해 4~7월 택배 일을 하다 그만뒀고, 인터넷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환심을 사려 최소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이버머니 비용과 차량 구입 대출금 등으로 빚이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사이버머니로 돈을 탕진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며 "(강씨의 범행은) 문자적 범죄가 아니다. 과도한 비난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대체불가능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유족들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해 유족들이 평생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미성년 성착취 '징역 20년' 어제 항소심 첫 재판 열려

미성년자 성착취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양정욱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배모(3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대 성착취 사진 195개·영상 36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기프트콘 등으로 10대 아동·청소년을 유인, 성착취 사진·영상을 받아낸 것이다. 피해자 11명은 모두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

아울러 배씨는 성착취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 혹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주 코로나 확진 13개월만에 600명대

10일 기준 602명... 지난 1월 18일 500명 넘어선 후 50일새 100명 늘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다.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21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13개월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601-602번)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 받고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602명으로 늘었다. 제주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한 자릿수 확진자 발생 경향을 보이다가 2차 확산세인 지난 8월 20명, 9월 13명 등 두 자릿수로 늘었다. 또 그해 11월 중순부터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며 지난해 12월 한달 사이 신규 확진자가 340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 1월 18일 500명을 넘어선 이후 50일 만에 600명을 넘었다.

특히 제주에서는 열흘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3월

들어서만 32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601번은 오현고등학교 학생 확진자의 가족인 590번의 지인이다. 601번은 지난 6일 자가격리 직전 받은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사흘째인 지난 9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 도방역당국은 601번이 자가격리 기간 확진됨에 따라 별도 접촉자나 동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602번은 지난 6일 제주에 여행을 온 관광객으로, 제주에 오기 전 서울 중랑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602번은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 받고 9일 오후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에도 2명(599-600번)이 확진됐다. 599번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지난 달 26일 오후 학교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600번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567번의 가족이다. 자가격리된 600번은 최초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567번은 수도권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지역 첫 환자 발생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 유행을 겪으면서 코로나19는 더 빠른 주기로 확산하며 급격하게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42명, 자가격리자는 821명(확진자 접촉자 574명, 해외입국자 247명)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승용차량 인도 돌진사고 잇따라

제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폭염대비 그늘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앞서 9일에는 코나EV 차량이 택시를 추돌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

고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쯤 제주시 삼도1동 인근 도로에서 A(50)씨가 몰던 코나EV 차량이 택시를 추돌한 뒤 중앙차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중전화부스가 파손됐고, A씨와 택시운전자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농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목)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목)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